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80年を 향한 標語

-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總會任職員會 열어
「日本基督教團」과의 協約검토

總會任職員會가 七月十四日
教役者・長老修養會場所인 勝浦

浦溫泉・浦島호텔에서 열려다
음과 같은 總會全體의 案件
을 檢討 決議했다.
討論事項
一、日本基督教團과의 宣敎
協約에 關해
日本基督教團과 宣敎協約을
맺기위해 兩教團代表로 構成
된 準備作業委員會에서 合意
를 本 協約案第二章案(福音
新聞六月號參照)을 檢討했다.
協約案第二章案에 對해서는
若十의 文章修正의 必要함이
지적됐으나 根本적으로 日本
基督教團과의 宣敎協約을 맺
는데 比한적인 意見이있었다.
더욱이 日本에 있는 在日韓
國人問題보다 韓國問題에 더
많은 關心을 갖고있는 日本
基督教團의 姿勢에 對해 강
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
나 第二次草案을 定期總會(八
三年度)에 上呈키로했다.
二、本國四教團에「在日同胞
宣敎의 날」制定要請에 關해

本國四教團(大韓敎會長老
會 統合 同(合同) 韓國基督
敎長老會 基督教大韓監理會)
에서 在日同胞에 對한 宣敎
를 적극지원해 줄것을 要請
하고 동시에「宣敎의 날」
을 定하여 全國敎會가 祈禱
하고 關心을 갖도록 正式으
로 要請하기위해 副會長 洪
永其牧師, 金京秋長老, 宣道局
長 尹宗銀牧師, 總務 金君植
牧師를 八月에 本國에 派遣
키로했다. 開拓敎會를 위한
億圓募金요청도 포함되었다.
三、金哲顯君에 關해
現在 光州傳道所에서 복역
중에 있는 金哲顯君의 出所
를 實現하기위해 本國四教
團과 協談次 서울에가는 四
人代表에게 交涉를 임한다.
四、예장(統合) 教役者海外
研修에 關한 協約件
大韓敎會長老會(統合)에
서 日本研修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年四次 十名씩 派遣하
方會割當金未納에 關해

고 있다는 公文에 對해 우
선 一次만 받기로했다.
五、李忠宣, 李聖雨兩牧師의
總會加入件
大韓敎會長老會(統合)平
壤老會에서 派遣하여 四國·
新居派道會에서 이미 敎會
中에 있는 李忠宣牧師와 大
韓敎會長老會(合同)에서派
遣하여 七月初에 豐橋敎會에
赴任한 李聖雨牧師의 總會加
入을 承認했다.
六、建築委員會委員選出件
建築基金이 불어남에따라이
를 運營하는 委員으로 金得
三牧師, 金榮植牧師, 金光長
老, 金京秋長老를 選出했다.
七、아세아宣道會議代表派遣
件
오는十月에 馬尼라에서 열
릴 아세아宣道會議에 代表로
서 宣道局에서 인선해 派遣
키로 했다.
八、沖繩敎會空地購入金各地
方會割當金未納에 關해



勝浦・浦島호텔에서 열린 教役者・長老夏期
修養會와 講師의 林寅植牧師(上)

聖經공부는 金榮植牧師, 金信
煥牧師, 安道宣牧師, 姜榮一牧
師가 담당했다. 저녁기도회는
金在述長老, 安道宣牧師가
正副講道師 安道宣長老가 담
당했다.
開會禮拜는 會長 黃義生
牧師가 福音전파에 힘쓰자(로
마一장八・十七)란 제목으로
權利로서의 愛의리가 아니라
심기는 자로서의 愛의리의식
을 가져야한다. 없는여건에서
있는 여건을 감사하고 사용
해야한다. 우리는 복음전파에
힘쓰자라고 강조했다.
林寅植牧師는 敎會의 經驗
을 통해 愛의리를 알기쉽게
강연했다. 學問 하나하나를
면서 풀이하고 실천방법을구
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무엇
보다는 하면 가능한다는 신
념과 굳은 信仰위에 서서시
標를 세우고 具體적인 프로
그램을 짜면 敎會成長은 만
드시 성숙한다고 강조했다.
강연내용을 기도라고 금식하
는 敎會는 기적과 祝福을경
험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敎
會는 生命力이 약화한다고강
조했다. 그리고 牧師의 力
한 指導力과 牧師를 理解하
고 協助하며 牧師를 알아주
는 敎會는 成長한다고 지적
했다. 또한 十一조원금은 獻
金의 目標規準이 아니라 해
야할 最低規準이라고 강조하
여 獻金에 對한 새로운 認
識을 불어 넣었다.
韓國敎會의 成長에는 네비
우스원칙이 크게 影響을 미친
고 강조하고 少市民的인 精
神으로 疲憊한 있으나 韓國
敎會는 앞으로 市場경제이라
고 역설했다.
聖經研究는 教役者와 長老
合同으로 四分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分團討論은 教役者는
二班, 長老는 一班으로 나뉘
고 牧師一分團은 ①教役者의 자
질向上 ②信徒敎育問題 敎育
프로그램 宣道要員養成 카리
큐담을 그리고 ③同胞의 아
픔에 동참하는 地域社會문제
들을 보고했다. 牧師一分團은

그들을 짜면 敎會成長은 만
드시 성숙한다고 강조했다.
강연내용을 기도라고 금식하
는 敎會는 기적과 祝福을경
험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敎
會는 生命力이 약화한다고강
조했다. 그리고 牧師의 力
한 指導力과 牧師를 理解하
고 協助하며 牧師를 알아주
는 敎會는 成長한다고 지적
했다. 또한 十一조원금은 獻
金의 目標規準이 아니라 해
야할 最低規準이라고 강조하
여 獻金에 對한 새로운 認
識을 불어 넣었다.
韓國敎會의 成長에는 네비
우스원칙이 크게 影響을 미친
고 강조하고 少市民的인 精
神으로 疲憊한 있으나 韓國
敎會는 앞으로 市場경제이라
고 역설했다.
聖經研究는 教役者와 長老
合同으로 四分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分團討論은 教役者는
二班, 長老는 一班으로 나뉘
고 牧師一分團은 ①教役者의 자
질向上 ②信徒敎育問題 敎育
프로그램 宣道要員養成 카리
큐담을 그리고 ③同胞의 아
픔에 동참하는 地域社會문제
들을 보고했다. 牧師一分團은

母國敎會서 修養會
京都南部敎會서

京都市南部敎會(金德化牧師)
는 母國敎會訪問修養會를
지난四月二十九일부터 五月五
일까지 三十五名가 參加하여
많은 恩惠를 받고 本國敎會
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京都南部敎會母國訪問一行
은 서울 반도유스호스텔을宿
所로 定하고 二十九日到着후
聖樂敎會(金養東牧師)의 案
內를 받아 親交를 나눴다.
三十日午前에는 宗敎敎會(羅
元容牧師)에서 세미나를 갖
고 오후에는 서울國立博物館
을 見學, 밤에는 永樂敎會朴
朝駿牧師가 세미나에 出席했다.
밤十一時부터는 仁川崇義敎會
의 徹夜祈禱會에 出席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되었다.

五月一日오전에는 觀音洞을
見學, 第三晚餐會. 一線을 봄
으로 本國의 風景名勝을 欣
집 체험하기도했다. 밤에는聖
大中央敎會(현기봉목사) 特別
集會에 參加하여 많은 恩혜
를 받았다. 五月二日主日禮拜
는 四名씩 나누어 연예신교
회들의 禮拜에 出席했고 밤
에는 仁川崇義敎會(李浩文牧
師)와 姊妹敎會를 드렸다.
三日午前에는 光林敎會(김선
도목사) 밤에는 金興교회(고
당삼목사) 오후에는 基督教放
送 四日밤에는 富川第一敎會
(최기석장목)에서 세미나 및
구역(숙회) 예배등에 참석하
여 교제를 나누며 많은것을
배우게되었다. 四日에는 民俗
村도 見學하는등 다채로운프
로그램으로 本國敎會와 親교
를 나누고 觀光地를 見學도
하여 많은것을 보고 五日에
現地에서 解散하여 고향에갔
다.
이修養會에 參加한 會員들
은 母國敎會가 베풀어준 사
랑과 풍성한 대접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서 日本에돌
아와 귀국보고와 交誼를통
해 모국교회의 넘치는 사랑
과 눈부신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못했다고 감사했다.

教役者・長老修養會
「敎會가 자랄라면」主題로

勝浦서

總會教育局(局長 李仁夏牧
師)主催의 教役者・長老夏期
修養會가 七月十三일부터 十
五일까지 和歌山・勝浦에서열
렸다. 參加者는 七十名 教役
者四十一名, 長老二十九名
金君植의 主題는「敎會가
자랄라면」아래 主題講道에는
林寅植牧師(서울노장진敎會)

聖經공부는 金榮植牧師, 金信
煥牧師, 安道宣牧師, 姜榮一牧
師가 담당했다. 저녁기도회는
金在述長老, 安道宣牧師가
正副講道師 安道宣長老가 담
당했다.
開會禮拜는 會長 黃義生
牧師가 福音전파에 힘쓰자(로
마一장八・十七)란 제목으로
權利로서의 愛의리가 아니라
심기는 자로서의 愛의리의식
을 가져야한다. 없는여건에서
있는 여건을 감사하고 사용
해야한다. 우리는 복음전파에
힘쓰자라고 강조했다.
林寅植牧師는 敎會의 經驗
을 통해 愛의리를 알기쉽게
강연했다. 學問 하나하나를
면서 풀이하고 실천방법을구
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무엇
보다는 하면 가능한다는 신
념과 굳은 信仰위에 서서시
標를 세우고 具體적인 프로
그램을 짜면 敎會成長은 만
드시 성숙한다고 강조했다.
강연내용을 기도라고 금식하
는 敎會는 기적과 祝福을경
험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敎
會는 生命力이 약화한다고강
조했다. 그리고 牧師의 力
한 指導力과 牧師를 理解하
고 協助하며 牧師를 알아주
는 敎會는 成長한다고 지적
했다. 또한 十一조원금은 獻
金의 目標規準이 아니라 해
야할 最低規準이라고 강조하
여 獻金에 對한 새로운 認
識을 불어 넣었다.
韓國敎會의 成長에는 네비
우스원칙이 크게 影響을 미친
고 강조하고 少市民的인 精
神으로 疲憊한 있으나 韓國
敎會는 앞으로 市場경제이라
고 역설했다.
聖經研究는 教役者와 長老
合同으로 四分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分團討論은 教役者는
二班, 長老는 一班으로 나뉘
고 牧師一分團은 ①教役者의 자
질向上 ②信徒敎育問題 敎育
프로그램 宣道要員養成 카리
큐담을 그리고 ③同胞의 아
픔에 동참하는 地域社會문제
들을 보고했다. 牧師一分團은

(KCPチエン・エアポートイワイ)

聖和商事

泰國王室에果實納品(14年間継続中)
大阪國際航空全機内食果實納品
代表者 禹永吉
(武庫川敎會長老)
大阪府池田市空港1-7-15(大阪國際空港前)
TEL (店) 06-843-0816
TEL (自) 06-855-3865

自動車 部品製造
自農機 部品製造
コントロールワイヤ (金屬挽物一式)

山田金屬工業

代表者 金吉雄
(武庫川敎會長老)
〒661 尼崎市南武庫之莊10丁目1-17
電話 (06) 436-7840(代)

土地・分譲住宅・建築設計・施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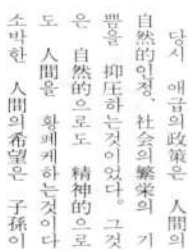
建設業者許可番号大阪府知事(般54)第19580
宅建免許番号大阪府知事⑤第6014

三喜建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平山信夫
本社ビル 大阪府守口市竜田通1丁目13番地
電話 (06) 991-3222(代)

崔 正 剛 講道師(大阪教会)

이스라엘인에 대한 애금인들의態度는 그들의 힘과 권력이 두려워 억압했다. 이스라엘인들이 받은 抑圧에 관한 그들의 이스라엘의 아들인 파넬의 이야기가 애금인들의王子가 됐다는 얘기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모세가 아가씨 죽음을 피하고 애금으로로부터 特別히 教育을 받게됐다. 모세란 「건축



내다」란 뜻이다.

모세의 成長에 對해서는旧約에 아무런記事도 없으나그려나 使徒行傳을 보면(七章二二—二三) 모세는 애굽人の 모는知惠를 배워 말과 일에 힘이 있었다고하며 그때 나이가 四十세였다고한다. 모세는 同胞들이 抑圧을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自己同族인 이스라엘人들의 事情을 살펴볼 생각이났다. 그는 자기同族 한사람이 애굽人에게 하대받는것을 보고 애굽人을을 때려죽이고 바로의 얼굴을흔들어 미디안으로 도망쳤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四十년간 살았다.

또 누가 모세를 이스

들의 支配者와 裁判官
 있는가? 하고
 絶對한 良心이
 이 萬物한 光榮
 을 하나님께서
 의 光榮에 나타난
 해 指導者와 解放者로
 위 이스라엘民族에게
 다.
 어두운 靑空에 希望과 따뜻한 빛
 은 世를 照했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일부러 내
 것이었다. 우리의 罪愆를
 님은 그의 獨生子 에
 스도를 이세상에 보내
 의 罪를 救贖하기 위
 十字架까지 달리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를, 罪를 우리대신 매
 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님이라는 개념을 생각
 다. 먼저 무서운存在
 는 人인 또는 惡魔,
 와 같은 普通인이고 공
 이며, 普通인인 人
 나지 않고 行動하며 人
 을 支配하는 무서운存
 생하고 있다.
 人間은 이러한것들에게
 드리고 또 物件을 바
 서서 人의 마음을 安定
 것이 重要な 것으로
 왔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니다. 광야를 해매
 찾아주셨던 것같이
 을 領하러 찾아주시는

그러나 그것에는 이웃사
이 있다. 그것은 이웃사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 첫과풀이 흐르는 땅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約
평, 서로의 關係 안에서
正常化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解放이 있고 約束이 있는 것이다. 네신을 벗어난다. 너가 서있는 곳은 거북의 등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뱀에서는 지금까지 야곱을 붙잡고 있었지만 지금 그를 救援해 주고 있다. 이사와 열민족을 救해 주고 祝福해 주신다는 것을 고 順從하라 고 말씀하고 계신다. 자기만 거두는 것이 많고 그 것으로 자기 자신은 幸福하고 自身の 生活을 개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自身の 幸福도 自身の 努力이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生活이 풍요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 서로가 關心하고 있는 狀況 속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命을 장대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信仰의 決斷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동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생애를 살 것인가? 抑壓을 받고 있는 社會에 있는 우리들은 荒野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解放을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解放해 주실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우를 分明히 보았고

때서 우리들을 救援해 주
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또
들에게 解放이 무엇인가
르쳐 주었다. 그러나 우리
는 現狀維持만 하면서 希
없는 狀況에 있어도 좋
? 約束의 땅을 모르고 좋
있는 行動만 해도 좋은지
日本당에서 서로의 믿음을
가면서 約束의 땅을 向하여
가면서 約束을 하는 사
들이 約束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해
約束을 당하는 사람에
는 約束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使
라고 생각한다.

環状線玉造駅 東へ徒歩2分

●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所在地／大阪市東成区中道3丁目14-15 〒537
●TEL／06-981-0781(代)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52(682)1177(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 話 052(711)4398

高完結牧師委任式 金慶得長老將立式 舉行



高完結牧師



金慶得長老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と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は、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は、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は、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は、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は、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は、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は、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東京第一教会

高完結牧師の委任式は、金慶得長老の長老將立式は、七月四日(日)午後四時、東京第一教会(盛大)で、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 京都南部教会で 挙行



徐聖祚 按手執事



金三順 按手執事



李龍出 按手執事

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が、七月三日(日)午後三時、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は、七月三日(日)午後三時、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は、七月三日(日)午後三時、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は、七月三日(日)午後三時、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は、七月三日(日)午後三時、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は、七月三日(日)午後三時、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は、七月三日(日)午後三時、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は、七月三日(日)午後三時、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行われた。

徐聖祚、金三順、李龍出の按手執事式は、七月三日(日)午後三時、京都南部教会(金徳化牧師)で、行われた。

同胞のための活動拠点! YMCA ホテル

- シングル45・ツイン10
- 会議室 ●大ホール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03)233-0611(代)

教役者夫人会研修会 鳥羽・池ノ浦で開催



鳥羽・池ノ浦で開催 教役者夫人会研修会

鳥羽・池ノ浦で開催 教役者夫人会研修会

金斗元 按手執事 宇部教会で 挙行



金斗元 按手執事

宇部教会は、金斗元牧師の按手執事式を、六月二十日(日)午後三時三十分、宇部教会(盛大)で、行われた。

宇部教会は、金斗元牧師の按手執事式を、六月二十日(日)午後三時三十分、宇部教会(盛大)で、行われた。

宇部教会は、金斗元牧師の按手執事式を、六月二十日(日)午後三時三十分、宇部教会(盛大)で、行われた。

宇部教会は、金斗元牧師の按手執事式を、六月二十日(日)午後三時三十分、宇部教会(盛大)で、行われた。

宇部教会は、金斗元牧師の按手執事式を、六月二十日(日)午後三時三十分、宇部教会(盛大)で、行われた。

宇部教会は、金斗元牧師の按手執事式を、六月二十日(日)午後三時三十分、宇部教会(盛大)で、行われた。

宇部教会は、金斗元牧師の按手執事式を、六月二十日(日)午後三時三十分、宇部教会(盛大)で、行われた。

白木金属商会

崔 永 模
(福岡教会 長老)

〒816 大野城市大字瓦田784-1
電話 092(581)1629

〈電々公社認定〉
構内交換機・ボタン電話

松下通信工業(株)専売代行店
(株)ナカヨ通信機特約店
東亜特殊電機(株)特約店

株式会社 高德通信工業

代表取締役 李 建 豪
(名古屋教会 執事)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 名古屋 <052> 431-3156 (代)

キムチ・ホルモン・焼肉タレ製造加工

高山食品

代表者 元 洪 植
(福岡教会 執事)

福岡市博多区東那珂3-9-26
電話 092(471)0258

安炳茂教授

カナンには、様々な種族がいて、それぞれが、君主制があつて、それぞれが、軍隊と国をもつていた。戦争をすれば、いつも勝つて、ちました。しかしイスラエルにおいては王をおかない。神と人々の間に人間をおいて、それ支配することを許さないといふ立場を貫き通したんです。エサレム上を読むと、そのこととてできます。しかし、エルサレムのもとに、一部の人々がきく、我々も王を立て、国を造らば戦いに負ける、というわけ。その時神が、サムエルを通して言います。お前たちは、自分が何を要求しているのかわかっているのか。それは神に拒むことであるし、王をたてずらば、彼はお前たちを奴隷にするであらう。子供は全て軍に取られ、王のために強制労働させられるようになるし、娘全て取られ、拳闘のはてに、前たちの所有するすべてのものを取りあげるであらう。それでもかまわないのか。それでいいのならやってみようと言われます。そこには「緊張」があります。いつもこれが問題にな

私たちは弱いためいつも強くあらんとします。日本と韓国の関係もそうなんですが、日本の軍国主義にいつも負けてしまっていた。だから我々も強くなろう、富国強兵しようとなる。こういうスローガンをだした人は多かったです。軍国主義に対して、軍国主義をもって報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強い政権をつくる——つまるところ、これは独裁政権をつくらねばならないというのと同じなんです。この時、政権がハッピール、民衆を抑圧するということを、きれいさっぱり忘れてしまっていた。民衆はそんなものを願ってはいないんです。弱くてもいいからそんなものはいらないんです。

韓国の歴史を読む時、皆さんはどう読むかわかりませんが、それが恥かしいものであろうと栄光に満ちたものであろうと、支配者の歴史なのであって、韓国民衆の歴史ではないんです。韓国の歴史を「韓国民族」の歴史としてみた時、韓国民の個性は無きに等しいんです。というのも、何千年間も中国大陸に対しては無防備で、支配者は例外なく大陸の勢力に左右されました。その服を着て、その言葉を使い、その文化に同化していった。言葉をとってみても、私たちの文化遺産は全て漢字で書かれています。にもかかわらず、何故韓国民族として残ったのかというと、全く外国の影響——その文化的な恩恵を受けなかった、否、受けられなかった民衆、そういうものがきても自分は自分として、自分の言葉を使い、自分の着物を着て自分の風習どおりに、生まれたそのまに生きた者、私たちがあれは無知な奴らだ、と侮辱した、あの民衆によって、私たちの歴史は保たれてきたんです。だから民衆は直観的に、強い政権を拒む

イスラエルという民族、国ができる、一部の人が王をたて、富国強兵しようとして、サウルという人を主に立てます。サウルがイスラエルの最初の王のように思われていますが、聖書をよく読んでみると、驚くことにサウルは、いわゆる「王」とは違う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戦争などが起ると、指令官となって戦い、終わるとまた、元の農夫の生活にもどるんです。官殿など建てず、自分の家に住んでいた。ですから、一機能としてその役割があるだけで、絶対的な権力をもった「王」ではないんです。

このイスラエルに対して、十二部族と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が、この部族連合に属していない、ユダスという小さな種族がありました。そこにダビデという優秀な若者がいたんです。どういう人かという聖書にもあるように、バンディッツの首領だったんです。山にゲリラ部隊をおいて、傭兵のようなことをしていました。

私は満州で育ちました。祖父が日本の支配下にいたくないといいて、私を連れて満州に行っただんです。一言もいわず、いわば私の人権を蹂躪したんです。生涯の半分を台北で過ごしたそこでバンディッツを見たんです。中国の力が弱く、日本の軍国主義が侵略してきた時、志のある人々がバンディッツをつくったんです。馬賊といわれていましたが、必ずしも泥棒ばかりしていたのではないんです。山なんかには隠れていて、日本の警察を襲撃したり、売国奴を殺したりとかもしたんです。夜に襲撃してくるんです。もちろん生きるために泥棒もしました。ダビデは、こういう背景をもっていたわけです。彼はサウルに自分を売りこんだんですが、しかし願って欲すれば誰でもいいわけで、イスラエルの敵であ

ダビデは、首都を作るため、エブスという部族の町に、これがエルサレムになるんですが、大きな神殿を築きます。しかし、それだけではだめなので、イデオロギーが必要になってくる。イデオロギーを成立させるには何かシンボルがないといけない。一番力強いものは何か。ヤウエの神である。それをシンボル化したものが「契約の箱」なわけですが、それを奪ってきてエルサレムにおきます。こうしてエルサレムは、政治的・軍事的さらに宗教的なイデオロギーをもつようになるんです。ダビデはここでユタスとイスラエルを統一し、「真」の意味での王として臨臨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武力をもって泥棒のように統一し、しかも自由と解放の、そして全歴史を支配する神ヤウエを、自分の「所有物」にしてしまいます。エルサレム神殿はヤウエの牢屋です。神は他のどこにもいない。ここにだけ現存すると。神に会いたい者は、ここに来なければ絶対に会えないとしたわけです。デイスボラ（離散）のイスラエル人、イスラエルの僑胞ですね（笑）、は

「ユエではありません。パールにはなるかも知れませんが、ヤーウエではありません。ヤーウエは奴隷のように捕われるような、そんな無力な神ではありません。（突然韓国語で。私の話わかりますか。何で私が日本語でしなければならぬのか。あなた方が韓国語をわかったらどれだけいいか知れない。大爆笑）ですからこういうことに対して反乱も起りました。ダビデの夫人の一人、エルサレムの人ですが、まず反乱を起しました。そしてソロモンの時に、結局破綻して、再び北のイスラエル、南のユダというように分裂します。（私たちが北と南に分断しています。おかしい運命にもね）

こうして、ダビデによって決定的な、解決不可能な障壁が残されたわけです。その分裂した北イスラエルの「伝統」を、そのまま受け継いだ地域が、ガリラヤなんです。

「異邦人の地」
とエルサレム

ガリラヤを説明するのに、ずい分と長い旅行をしました。さうにガリラヤは、六百年以上に

ただ、間接的に書かれていますが、ヨハネは真正面からアンティパスを批判した。アンティパスは、彼を放っておけば必ず峰起するだろうと、自分の地位が危うくなるだろうと考え、ヨハネを殺すわけです。このことはヨセフスという歴史家の残した資料にも、はっきりと書かれているんです。

現在はアンティパスのもと、政治的な緊張と経済的な搾取に曝されており、歴史的には自由の、そしてハッピールの神ヤーウエの伝統を受けついでいるガリラヤにイエスは来た。

ですからガリラヤとエルサレムは敵対的な歴史をもっているんです。ハッピールの故郷ガリラヤノ勢力をもった者の故郷エルサレムノ名前がヤーウエというだけであって、現実には、所有の神パールの崇めているエルサレムノこの後、また他民族によって支配される歴史を繰り返していくんです。

エルサレムは、ローマの下において、特別な待遇を受けていました。エルサレム、ないし、ユダにいる者はいつも特權に恵まれたんです。例えばエルサレムの主流であるパリサイ人、サド

尹官炳長老 慶惠重講道師
東京都足立区小台二二
NEW LIFE M.A. ODAMI
〇三(九一一)四四四六

主題 現代を如何に生きるか
——愛によって働く在日キ
リスト者として——

校長 金安弘牧師
講師 羅曾男牧師、朴米雄牧師
李海春牧師、安道宣牧師、
崔正剛講道師

日時 八月十六日(月) 午後
日(木)
場所 多賀荘(岐阜市)
費用 一八、〇〇〇円
(教会より多少の補助があり
ます)

主題 在日を告白する教会青年
の責任
副題 新たな在日の主体性を
求めて

主牧 姜榮一牧師(青年局長)
講師 金頭球牧師(聖書研究)
朴鍾碩氏(講演)
日時 八月十一日(木) 午後十四
日(土) 三泊四日
場所 ホテル・ニュー諏訪
費用 一八、〇〇〇円
(多少教会より補助がある予
定です)

場所 長野県白馬、ロツジ・シン
オン
日時 八月二十三日(日) 12

十五日(水)
講師 大下幸恵先生(日本基督教団教育委員会委員長)
問い合わせは、呉舞恵まで
〇六(七五四) 七五九六
海外同胞基督教青年シンポジウム
主題 海外同胞青年の生き方を求めて

主題 海外同胞青年の生き方を
求めて

權泰岳長老(東京敎會)의夫人인 崔分善女史가 지난六月十二日 숙환으로 別世했다.

故崔分善女史는 一九一五年六月二十三日 慶尙北道昌老과 結婚하였다. 權泰岳長老와 結한 후 一九四二年에 渡日하여 在日韓國人이 籍은 온갖 苦生을 다 하였다. 故崔分善女史의 영결식은 十五日 吳元台牧師의 司式으로 東京教會에서 있었는데 約三百余名이 參席하여 임종목이 거행했다. 슬하에는 三男三女가 있다.

不動産部 千葉県船橋市前原西 1-25-18
電話0474 (76) 6 1 8 1 ~ 2 番
自 宅 千葉県船橋市前原西 1-17-1
電話0474 (72) 2 2 2 8

東京都江東区永代 2-11-3

京都市右京区西大路五条西30m
電話 075 (311) 4008